



전남 '소멸 위험' 더 커졌다...20개 시·군 '적신호'

소멸위험지수 0.329...전국 평균 절반
목포·무안 '소멸위험지역' 신규 진입
소멸 '고위험' 지역도 11곳 '전국 최다'
저출생·지방 소멸 대책 '백약이 무효'

전남의 지방 소멸 위험이 더욱 커졌다.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과 서부권 대표 도시인 목포시까지 '소멸위험지역'에 신규 진입하는 등 전남의 소멸 위험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한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남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0.6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임산·출산 적령기)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소멸 위험은 커진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중위,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남 인구는 170만 8천명으로 10년 전 대비 5.1% 감소했다. 20~30대 여성 인구

는 23.4% 급감한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26.4%까지 늘었다. 특히 목포시와 무안군이 올해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 중 90.9%(20개)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됐다.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 시·군은 11개(고흥·신안·보성·함평·구례·진도·곡성·장흥·해남·완도·강진)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시와 광양시 2곳만 소멸 주의 지역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소멸 위험으로 진입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곧장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악화된다는 점이다. 실제 2008년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던 고흥·신안·보성·함평·곡성의 경우 20년 사이 전체 인구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3%까지 급감했다. 이 중 20~39세 여성 인구는 58~67% 감소하며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선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적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정책의 인문 지향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사는 행복도시 '인문도시' 선포식이 지난 29일 광주 동구 동명동 인문학당에서 열렸다. 이날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동구' 선포식에 참석한 임택 청장과 주민, 관계 공무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예리 기자

반토막났다. 이와 달리 65세 이상 인구는 26~43%까지 폭증했다. 소멸위험지역 증가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흐름을 늦추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치적 개입과 지역 주체의 노력

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100대 과제를 수립해 전남도 출생수당, 100억원 규모 청년 희망펀드 조성, 외국인 조기 안착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원스톱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의회 33년만에 첫 여성 의장 예고

민주 경선서 신수정 의원 의장 후보 선출...8일 선거

광주시의회 개원 3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9대 광주시의회 후보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재선의 신수정(북구3·사진)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남 오후 시장에서 제9대 광주시의회 후보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경선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의장 경선에서는 1차 투표에 이은 결선 투표 결과, 재선의 신수정 의원이 초선 강수훈(서구1)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의장 경선에는 두 후보와 함께 재선 박미정(동구2·심철의(서구4) 의원, 초선 박수기(광산5)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제1부위원장의 경우 서용규(비례) 의원이 홍기원(동구1) 의원을 꺾었고, 제2부 의장은 채은지(비례) 의원이 서임석(남구1) 의원과 경쟁 끝에 후보로 확정됐다. 5개 상임위원장 후보는 모두 1명씩 등록해 찬·반 투표로 확정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 정다은(북구2)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북구1) 의원,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광산구1)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필순(광산구3) 의원, 교육문화위원장 명진(서구2) 의원이 각각 후보로 선출됐다.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오는 8일 본회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 후보의 의장 당선에 확실시된다. /박선강 기자

Today	3면
尹정부 올 세수 확보 '비상등'	3면
'내외환' 광주 제조업 '흐림'	12면
유류세 인하 축소...기름값 ↑	13면

최대 218mm 폭우...광주·전남 곳곳 '불편'

침수·나무 쓰러짐 등 안전조치 52건...인명 피해 無

주말·휴일 광주·전남에 최대 218mm 가 넘는 폭우가 내렸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다만 곳곳에서 지역민의 불편이 이어졌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광주·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구례가 218mm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도 196mm, 영암 187.5mm, 장흥 186.5mm, 광양 174.8mm, 순천 156.5mm, 강진 148mm, 광주 126.5mm 등의 순

이었다. ▶관련기사 2면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광주 14건, 전남 38건 등 총 52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신고 유형은 도로 물 고임·침수(배수 불량) 등이 42건(광주 8건·전남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나무 쓰러짐 6건(광주 3건·전남 3건), 토사 유출 2건(광주), 빈집 담장 무너짐 1건(광주), 간판 흔들림 1건(전남) 등이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주택에선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앞서 오전 10시27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도로에서 침수 신고가 들어와 배수작업이 실시됐다. 이날 정오께 영암군 한 도로에선 A(60대)씨가 몰던 차량이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항공기 결항과 여객선 통제도 잇따

랐다. 전남 광주공항에선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1편이 기상 악화로 결항했다. 전남 53개 항로 80척 여객선에 대한 통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24개 항로 27척 여객선을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광주·전남 5개 국립공원에 대한 입산도 통제됐다. 전남에서도 산책로 출입구 38개소, 하천 주차장 2개소, 하천교 7개소, 기타 3개소 등의 출입이 제한됐다. 광주·전남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강수량은 전남 해안 일부 등 많은 지역은 120mm, 나머지 광주·전남은 30~80mm로 예보됐다. /정은정 기자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